

전북경제, 부진 속 수출·제조업 출하 회복

생산 감소폭 축소... 내수·건설은 여전히 약세

전북지역 경제가 수출과 제조업 출하 회복에 힘입어 일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회복세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11월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했다. 감소폭은 10월(-11.9%)보다 크게 줄었으며,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2% 증가해 소폭 반등했다. 다만 자동차(-22.7%), 화학제품(-7.2%), 식료품(-5.9%) 등 주요 업종의 부진은 여전히 생산을 제약했다.

반면 제조업 출하는 11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재고 증가

율도 7.6%로 둔화됐고, 재고율은 144.1%로 전월보다 12.7%포인트 하락해 수급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내수 부문에서는 위축 흐름이 뚜렷했다. 11월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0.1% 감소, 대형마트 판매는 14.8% 줄었다.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도 8.3% 감소해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건설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11월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34.0% 감소했으며, 건축허가면적은 0.9% 증가에 그쳤다. 미분양 주택 수는 2,286호로 소폭 줄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증가해 주택시장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설비투자는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였다. 11월 기계류 수입액은 5,1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7% 증가했으나, 제조업 설비투자 실행 BSI는 94로 기준치(100)를 밑돌아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전북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11월 수출은 5억 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으며, 동제품(+71.8%)과 자동차(+56.0%)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수입은 3.3%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1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용 여건은 비교적 양호했다. 11월 취업자 수는 99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7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4.6%로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1.3%로 하락했다. 다만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이어졌

다.

물가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전월보다 낮아졌으며, 생활물가 상승률도 3.2%로 둔화됐다. 주택 매매가격은 11월 전월 대비 0.3% 상승했으나, 지역별로는 전주 상승, 익산·군산 하락 등 차별화가 나타났다.

한편 12월 전북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4, 비제조업은 78.4로 모두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10.4로 낙관적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월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전북경제는 수출과 제조업 출하 회복으로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 진입했지만, 내수와 건설경기 부진, 기업심리 위축으로 단기적인 반등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상근 기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속 지원 총력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목표 역대 최대 규모 1조4500억원 설정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내수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저성장 고착화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6년 보증공급 목표를 역

대 최대 규모인 1조4,5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신보는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신규 보증을 조기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약 4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간접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대환대출 등으로 구성되며, 지원 유형에 따라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정책자금 보증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리대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보증드림(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자금은 정부 지원을 통해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한국산 농기계 베트남에 제공

농촌진흥청이 한국산 농기계를 베트남 북중부 지역에 지원하며 현지 땅콩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일 베트남 응에

안성 빈(Vinh)시에 위치한 북중부 농업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을 열고, 토양관리기와 땅콩 수확·탈곡 관련 장비를 베트남 농가에 전달했

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농업과학원 관계자와 현지 농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의 일환으로, 코피아(KOPIA) 베트남센터 주관 아래 베트남 북중부 지역 땅콩 재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토양관리기 7대, 땅콩 탈곡기 2대, 땅콩 탈피기 2대 등 총 3종 11대의 농기계를 응에안성, 하띤성, 광빈성 등 북중부 건조지역 3개 성의 땅콩 시범마을에 기증했다.

기증식에 앞서 한국 농기계 업체 전문가들은 현지 농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땅콩 재배지에서 농기계 운용 실습과 기본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해 장비 활용도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지원을 통해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을 겪는 베트남 땅콩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6일 베트남 응에안성 빈(Vinh)시에 위치한 북중부 농업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을 가졌다.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이벤트

중소기업중앙회가 새해를 맞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부터 2월까지 노란우산을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에게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2월 28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가입자는 5만 원 상당의 혜택으로 온누리상품권 또는 농협마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 가맹점은 물론, 온라인몰 '온누리시장'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농협마트는 국내산 고급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로, 실용성과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오상근 기자

복잡한 제조 창업, 통합 지원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제품화 올인원팩' 사업 신설

제조 스타트업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절차와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은 제조 스타트업의 구조적인 제품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화 올인원팩(All-in-one Pack)' 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 스타트업은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 시금형, 초도양산 등 각 공정을 서로 다른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 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양 변경, 일정 지연, 비용 증가가 반복됐고, 이는 최종 양산 실패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화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디자인부터 설계, 시제품 제작, 시금형, 초도양산까지 전 단계를 단일 전문가가 관리·지원함으로써 공정 단절을 최소화하고,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화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제조전문 주관기관'이다. 주관기관은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하거나, 적합한 파트너를 연계해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품 설계부터 초도양산까지 전 과정 지원이 가능한 민간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서비스 역량과 전담 인력, 파트너 네트워크, 사업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총 6개 내외의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주관기관 선정 이후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제조 스타트업 약 80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의 제품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제품 개발 단계와 필요에 따라 디자인, 설계, 시제품 제작, 초도양산 등 필요한 구간을 선택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 위험을 줄이고,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생태계혁신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협력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을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대·중견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 단위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4년간 최대 200억 원의 R&D 자금이 지원되며, 이는 중소벤처 R&D 사업 가운데서도 파격적인 규모다.

기존 R&D 과제가 개별 기술 단위의 개발을 지원해 왔다면, 생태계혁신형은 여러 기업이 협력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복수의 핵심 기술을 동시에 개발·실증함으로써 기술 장벽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기부는 △AI·디지털 △첨단소재·제조 △제약·바이오 △첨단소

재·부품 △탄소·에너지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검증을 거쳐 최종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과정은 국내 산업 생태계 혁신은 물론, 글로벌 신시장 창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약 3개월간의 공모를 통해 8개 내외의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 팀은 최대 6개월 동안 기술·시장 검증(PoC·PoM), 3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 유치, 프로젝트 팀 보완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사업성과, 기술개발 타당성, 혁신성 등이 검증된 5개 프로젝트를 선발해, 4년간 최대 200억 원 규모의 본격적인 R&D 지원을 제공한다.

대규모 R&D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사업 운영 방식도 기존과 차별화된다. 프로젝트에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전문가가 초기 과제 발굴 단계부터 참여해 기술·시장 검증, 팀 구성, 연구 수행을 총괄한다. 필요 시 목표 변경이나 과제 중단까지 지원하는 '무빙 타겟' 방식도 도입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